스위스의 대미(對美) FTA 추진 포기와 한 · 미 FTA

박원화 | whpark74@naver.com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

스위스는 2005년 6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시작하였지만 민감한 농산물을 협상의제로 정하는 데 난항을 겪은 후 7개월 만인 지난 2006년 1월 회담을 중단하면서 미국과의 FTA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 미 FTA 체결 교섭을 진행키로 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우리도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용하는 듯하다.

EU에 편중된 스위스의 대외관계

스위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구성하여 1972년 EU(당시 EEC)와 EFTA간 공산품에 관한 FTA를 체결한 가운데 EU와 유리한 교역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대외무역은 2004년 수출의 62.6%와 수입의 83.4%가 EU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교하여 미국은 두 번째 무역대상국이기는 하지만 스위스 수출의 10.1%, 수입의 4.3%만을 차지하는 무역대상국에 불과하다. 스위

스가 EFTA 회원국으로서 EU와의 FTA 체결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EU 회원국과의 개별적 교역을 논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2004년 당시 EU 회원 15개국과의 교역을 회원국별로 살펴본다면 독일이 스위스 수출의 20.6%를 차지하여 2위인 미국의 10.1%와도 큰 비교가 된다.

2004년 현재 스위스의 대미 투자는 651억 달러로서 제조업 분야만을 볼 때 미국에 대한 제2의 투자국이다. 미국의 대스위스 투자는 687억 달러로서 남미와 중동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 스위스의 대미 투자는 스위스의 총해외투자 중 18.9%에 불과한 것으로서 EU에 대한 44.1%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또한 유럽 한복판에 위치하는 나라로서 인접 EU 회원국과 정치, 사회 협력이 매우 긴밀하면서 문화적 동질성까지 가지고 있지만 약 200년 전 국제사회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된 후 독특한 정치지형을 갖게 된 배경 때문에 EU 회원국이 아닐 뿐이다.

한국의 대미 관계는 스위스보다 월등히 중요

스위스와 달리 한국의 대미 관계는 우선 교역 면에서 미국이 2003년까지 한국의 제1수출시장이었으며 2004년에는 중국이 우리 수출시장의 19.7%를 점하여 17%인 미국보다 약간의 우위를 보일 정도이며, 수출입을 감안할 때 중국은 32.9%, 미국은 29.9%로서 역시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일곱 번째 중요 교역대상국으로서 2004년도 양국간 무역액이 725억 달러에 이르나 스위스는 24번째 교역대상국으로서 무역액이 21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과 미국의 쌍방향 투자액은 2003년 말 현재 157억 달러로서 스위스, 미국간 1,338억 달러와 크게 비교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FTA 체결시 양국간 투자증가, 특히 미국의 대한 투자증가가 기대되는 장점이 있다.

양국 경제에서 미약한 농업비중

2003년도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와 한국의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표와 같다.

스위스와 한국은 각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자국의 농업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스위스가 미국과의 FTA 예비교섭을 7개월 만에 중단하게 된 것도 스위스 정부에 대한 스위스 농민들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는 전체 교역의 약 70%를 인접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미국과의 약 7%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비율은 약 30%나 되며 중국과 미국이 큰 차이 없이 우리의 제1, 2위 수출시장

스위스와 한국의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3, 세계은행 통계)

	스 위 스	한 국
국민총생산	2,990억 달러	5,764억 달러
– 농업 비중	1.5%	3.6%
– 제조업 비중	34.0%	36.4%
– 서비스산업 비중	64.5%	60.0%
고용 비중		
– 농업	4.1%	8.8%
– 제조업	23.9%	19.1%
– 서비스업	72.0%	72.1%
농·임산물의 수출액	8,027백만 달러	1,922백만 달러
– 전체 수출액 중 비율	3.2%	0.76%
농·임산물의 수입액	3,678백만 달러	9,465백만 달러
– 전체 수입액 중 비율	7.5%	4.2%

을 형성하고 있다.

중·일 거대경제권에 대항하는 수단 및 소비자 혜택

오늘날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이는 스위스가 EU 회원국의 사실상 일원으로서 EU 경제권에 편입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경제축에 대항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다는 점에서 비교되는바,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2004년 WTO 보고서에 의하면 농산품에 대하여 스위스가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평균 36.2%인 데 비하여 한국은 52.1%이다. 양자 모두 국제기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서 미국과의 FTA 체결시 하향 조정되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비농산물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평균관세가 평균 7%이지만 스위스는 2.3%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인하효과가 두드러지는 관계상 한·미 FTA 체결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한·미 FTA 체결시 질적 성장 및 안보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지만 아직은 청렴도, 경제자유도지수, 노동, 환경 등에서 스위스나 미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경제발전, 즉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부패의 정도를 판단케 하는 2005년도 투명도 지수에서 33개국 중 스위스가 3위, 미국이

6위, 한국이 16위를 기록하였다. 경제자유도 측정에서는 미국이 2위, 스위스가 3위, 한국이 10위였으며, 환경지속가능성 지수에서 스위스가 2위, 미국이 11위, 한국이 26위였고, 노동표준에서 스위스가 1위, 미국이 5위, 한국이 11위를 기록하였다.

이 점에서 동등하게 높은 경제수준에 있는 스위스와 미국은 FTA 체결을 통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소지가 별로 없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6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던 EFTA(스위스 포함)와의 FTA 효과와 함께 여러 방면의 국가발전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미 동맹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다시금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1석 5조의 효과마저 기대할 수 있는 황금기회일 뿐 아니라 21세기 국운을 융성하게 하는 최대의 외교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